

# 노란봉투법 시행...광주 기업들 '노사 리스크' 본격 대응

### 광주경총, 임단협 대응전략 설명회...회원사 교섭 역량 강화 임금 인상 압박·교섭 범위 확대...노사 환경 불확실성 커져

광주 경제계가 '노사 리스크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며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임금 인상 압박이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최근 불확실한 노사관계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대비하고 회원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6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는 경제 여건 분석과 법·제도 대응을 축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올해 임단협 환경을 둘러싼 변수들을 입체적으로 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기업들이 실제 교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제시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먼저 거시경제 강연에서는 고물가·저성장 흐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 요구와 기업의 지급 여력이 충돌하는 구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불확실한 노사관계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대비하고 회원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6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적 한계를 짚었다. 양대 노총의 임금 요구안을 생산성, 수익성, 업종별 경영 여건과 비교 분석하며 기업별로 감내 가능한 협상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기존 연공 중심 임금체계로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직무·성과 기반 보상체

계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법·제도 강연에서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대상 확대에 대해 원·하청 간 교섭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교섭 요구 발생 시 대응 원칙과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특히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변화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대응 방식은 올해 노사관계의 핵심 변수로 꼽혔다.

협력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 구조상, 원청 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입법 논의, 경영성 과금의 임금성 판단,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쟁점별 대응 시나리오도 공유됐다. 각 이슈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단협 전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사전 시뮬레이션과 내부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2026년 법 개정 효과가 본격화되며 노사 교섭 범위와 갈등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변화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교섭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삼성전자 모델이 AI 기반의 고도화된 식재료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 AI가 관리...'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출시

### 삼성전자, 최적의 성능·에너지 효율 구현 냉장고 선택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식재료 관리 기능을 강화한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고도화된 AI 기능이 적용돼 식재료 관리가 더 편리해졌다. 음성 인식 제어 기능을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펠티어(Peltier) 반도체 소자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으로 상황에 맞춰 최적의 냉각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구현했다.

신제품은 32형 대형 터치스크린이 탑재

된 프리스탠딩 모델과 9형 터치스크린에 키친핏 맥스 디자인을 갖춘 키친핏 타입의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이번 신제품은 생성형 AI '구글 제미니'와 결합돼 식품 인식 성능이 크게 향상된 'AI 비전'이 탑재됐다.

다양한 신선·가공 식품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포장 식품이나 사용자가 식품을 담은 용기에 직접 작은 라벨의 내용까지 인식해 푸드리스트에 등록한다.

인식된 식재료 관리부터 레시피 추천까지 다양한 다른 식생활 경험을 제공하는

'AI 푸드메니저'도 지원한다.

상황과 사용 패턴에 따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쿨링 기술도 적용됐다. 하이브리드 쿨링은 평소에는 컴프레서를 단독으로 운전해 냉각하고,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거나 강력한 냉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펠티어 반도체 소자를 함께 작동시켜 최적의 냉각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냉장과 문을 자주 여닫거나 정리를 위해 문을 오래 열어둘 때처럼 내부 온도 상승 시 일반 냉장과 대비 냉장고 내 온도를 20% 더 빠르게 낮춘다.

아울러 가벼운 터치나 음성으로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물론 자동 문 닫힘 기능을 추가한 '오토 도어'가 적용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착수

### 한전, 2030년 1단계 준공 목표...해상풍력 수도권 수송 시동

한국전력공사가 서해안 해상풍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구축에 본격 착수하며 국가 전력망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송도

주요 수요처로 보내기 위한 4개 노선의 초고압직류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1단계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설정됐다. 전체 사업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8개 변환소 부지 선정을 마쳤으며, 올해 초 경제성·시공성·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송전망

을 해저로 구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근에는 해저케이블 경로지에 대한 설계 절차에도 착수하며 사업이 본격에도 올랐다.

통상 9년 이상 소요되는 HVDC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공정 혁신도 병행되며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국내 케이블 제조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규모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초대형 포설선박 등 관련 장비 도입도 추진 중이다.

국가 핵심 전력망 구축과 동시에 HVDC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제네시스 '2027 GV60·GV70' 전동화 모델 출시

**편의 사양 강화·고객 선택권 확대...안전성 등 높여**

제네시스가 고객 편의 사양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한 연식 변경 모델 '2027 GV60'과 '2027 GV70 전동화 모델'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7 GV60은 판매 가격을 동결하면서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제네시스는 2027 GV60에 '페달 오조 작 안전 보조'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다. 정차 또는 저속으로 주행할 때 전후방 1.5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100% 밟으면 차량 스스로 토크를 제한해 충돌 가능성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또 1열과 2열 옵션이 한데 묶여 있던 기존 '컨비니언스 패키지'의 2열 옵션들을 '2열 콤포트 패키지'로 분리했다.

럭셔리 중형 SUV 전기차로 입지를 굳힌 2027 GV70 전동화 모델은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 사양을 제공한다.

제네시스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2027 GV70 전동화 모델에 기본 적용했고, 빌트인 캠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제10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기념 시·도민 제22회 영산강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업국 T. (062)370-7090

※ 후원시에는 별도 진행합니다.  
※ 취·입장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 **광남일보** **드림투데이** | (사)광남문화재단 **건국대학교**

후원 (여정) : **신민사** **전남영일문인협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대한척척사** **광남일보**